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인(異人)’의 형상과 이인소설의 서사적 정체성 연구

김동욱*

- I. 서론
- II. 이인 서사의 문헌적 연원과 소설적 변용
- III. 이인소설의 전개: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 IV. 이인소설의 서사적 특질과 미학적 지향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동일이 제시한 ‘일사소설(逸士小說)’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다 학술적 통용성과 직관적 이해도를 갖춘 ‘이인소설(異人小說)’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그 서사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인’은 도술이나 방술 등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지배 이념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인물 또는 집단을 지칭한다. 이인설화의 연원은 『수이전(殊異傳)』의 <죽통미녀>, <노옹화구> 등에서 확인되며, 이는 『청학집』, 『해동전도록』, 『해동이적』 등을 거치며 도맥(道脈)의 계보와 함께 역사적 지속성을 확보해 왔다. 허균의 <장생전>과 <남궁선생전>은 이러한 설화적 전통을 소설적 문법으로 형상화한 초기 사례로, 비범한 행적의 나열과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인소설은 단순한 이적(異蹟)의 보고에 머무는 설화와 달리, 주인공이 세속적 삶을 뒤로 하고 산천이나 해도(海島) 등 초월적 이상향으로 은거하는 서사적 의미를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학 전공 조교수.

강조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의식을 투영한다. 특히 주인공이 정통적인 사승(師承) 관계보다는 자발적인 계기나 독학을 통해 역량을 구축하고, 도술을 통해 기성 질서의 권위를 상대화하거나 전복하는 양상은 이인소설만의 독자적인 변별점이다. 본고는 기존에 영웅소설로 분류되던 <최고운전>과 <홍길동전>, 그리고 <전우치전>을 이인소설의 맥락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인물의 비정상적 출생과 비범한 행보, 그리고 초월적 은거로 귀결되는 서사 구조가 이인소설의 핵심적 정체성임을 논증하고, 한국 고전소설사의 독자적인 유형으로서 이인소설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이인(異人), 이인소설, 일사소설, 도술,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

1. 서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인(異人)’은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에 대하여 최삼룡은 이인을 보편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특이성을 지닌 존재이자, 특히 “도술이나 방술의 행적이 있는 사람”¹⁾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박희병 역시 이인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²⁾으로 규정하며 그 존재 양식의 은폐성에 주목하였다. 한편, 이와 인접한 개념으로 조동일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불우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³⁾으로서 ‘일사(逸士)’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배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보이며 이념적으로도 이단을 택하는 사람들”⁴⁾을 가리키는 ‘방외인(方外人)’⁵⁾의 개념 역시 이인과 궤를 같이한다. 결론적으로 이인은 지

1) 최삼룡, 『이인설화 출현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어문논집』 18권 1호, 안암어문학회, 1977, 79~80면.

2)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I)-설화·야담(野譚)·소설과 전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14권 4호, 일지사, 1988, 28~29면.

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38면.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413면.

5)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1999, 9면.

배 이념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소수 집단이나 개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조동일은 한국 초기 소설의 유형을 명혼소설(冥婚小說), 몽유소설(夢遊小說), 일사소설(逸士小說), 영웅소설(英雄小說)의 네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각 유형의 연원을 각각 명혼전설,⁶⁾ 몽유전설,⁷⁾ 일사의 전(傳),⁸⁾ 그리고 ‘영웅의 일생’ 서사 구조를 내포한 국조 신화에서 도출하였다. 특히 ‘일사소설’은 조동일이 장지연의 『일사유사(逸士遺事)』에 착안하여 독자적으로 명명한 개념이다. 그는 허균의 「엄처사전」, 「손곡산인전」, 「장산인전」, 「남궁선생전」, 「장생전」 등을 일사소설의 효시로 규정하며, 이들 작품이 공통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였으나 사회적 불우함 속에 생을 마친 인물의 서사”⁹⁾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조동일이 정립한 일사소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불행한 처지에서 태어났다.

(나) 겉으로는 평범했으나, 사실은 비범했다.

(다) 여러 가지 비범한 행적이 있었으나,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다.

(라) 결국 불행하게 죽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동일은 일사소설이 당시 사회 체제 및 지배 이념에 비판적 거리를 두거나 이를 거부하는 자아의식을 지닌 빈곤 사대부, 중인, 아진, 천민 등 소외 계층의 지향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그는 일사소설의 구조적 본질을 “자아가 세계를 개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단 안으로 굳히고, 겉으로는 세계와의 화합을 유지하는 관계를 갖는 것”¹⁰⁾으로 규정하였다.

본고는 일사소설이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그 개념적 토대를 닦은 조동일의

6) 명혼전설의 사례로는 중국의 <신도도전설(辛道度傳說)>, 한국의 <최치원전설(崔致遠傳說)>, <이인보전설(李仁甫傳說)>을 들었다. 조동일, 앞의 책, 197, 225면.

7) 몽유전설의 사례로는 중국의 <침중기(枕中記)>, <남가기(南柯記)>, 한국의 <조선몽생(調信夢生)>을 들었다. 위의 책, 233면.

8) 일사소설의 유래가 된 작품의 사례로 이색의 <송씨전(宋氏傳)> 등을 언급했다. 조동일, 위의 책, 240면.

9) 위의 책, 238~239면.

10) 위의 책, 243면.

선행 연구가 지닌 학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다만, 해당 유형의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일사(逸士)’라는 용어보다 ‘이인(異人)’이 학술적·직관적 측면에서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사’는 실제 용례가 드물어 그 함의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이인’ 및 ‘이인설화’는 국문학계의 후속 연구들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학술적 통용성을 확보하였다. 두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 작품군이 실질적으로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보편성과 이해 편의성을 갖춘 ‘이인소설’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고는 지금부터 ‘일사소설’ 대신 ‘이인소설’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동일의 ‘일사소설’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학술적 통용성과 직관성을 확보한 ‘이인소설’이라는 명칭을 제안하며 그 서사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인은 비범한 능력을 갖추고 기성 지배 이념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존재로, 본고는 설화적 전통에서 발원하여 허균의 작품을 통해 소설적 문법으로 안착한 이인소설의 역사적 지속성에 주목한다. 특히 주인공이 독학이나 자발적 계기로 역량을 구축하고, ‘부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을 통해 초월적 이상향으로 은거하며 자아와 세계의 대결 의식을 투영하는 점을 핵심적 변별점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영웅소설군으로 분류되던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을 이인소설의 맥락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국 고전소설사의 독자적인 유형으로서 이인소설의 학술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이인 서사의 문헌적 연원과 소설적 변용

이인설화의 연원은 『수이전(殊異傳)』에 수록된 일군의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최남선은 국내 문헌상 ‘이인(異人)’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효시로 『수이전』의 <죽통미녀(竹筒美女)>를 지목한 바 있다.¹¹⁾ 본고는 <죽통미녀>와 더불어 <노옹화구(老翁化狗)>를 이인설화의 선구적 양상을 보여주는

11) 『육당 최남선 전집』, 역락, 2003, 307면.

핵심 텍스트로 주목하고자 한다.

<죽통미녀>

김유신이 서주(西州: 충청남도 서천)에서 경주로 돌아올 때였다. 길에는 기이한 나그네가 앞서 가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그네가 나무 밑에서 쉬자 유신 또한 쉬면서 자는 척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더니, 품속에서 대나무 통을 꺼내 흔들었다. 그러자 두 미녀가 통에서 나와 함께 앉자 말을 나누다가, 다시 통 속으로 들어가자 품속에 감추고 일어나 길을 떠났다. 유신이 뒤를 따라가서 그 일에 대해 물어보니, 말이 부드러웠다. 함께 경주에 와서, 유신이 나그네와 함께 남산 소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두 미녀도 나와서 참석했다. 나그네가 말했다.

“나는 서해(西海)에 사는데, 동해에서 아내를 얻어 함께 부모님께 문안드리러 갑니다.”

잠시 뒤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끼어 어둑해지더니, 홀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¹²⁾

<노옹화구>

신라 때에 한 노인이 김유신의 집 문밖에 이르렀다. 유신이 손을 이끌어 집으로 들어와 자리를 마련한 뒤 노인에게 말했다.

“변신술이 예전과 같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호랑이로 변했다가, 닭으로 변했다가, 매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집에 사는 개로 변해 나가 버렸다.¹³⁾

앞선 설화들은 공통적으로 경이로운 능력을 보유한 인물들의 초현실적 행적을 다루고 있다. 즉, 이인설화의 핵심적 층위는 비범한 존재가 실현하는 기이한 이적(異蹟) 그 자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인설화의 전승 양상을 보여주는 후대 문헌으로는 『청학집(靑鶴集)』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조여적(趙汝籍)이 당대 도인인 편운자(片雲子) 이사연(李思淵)을 60여 년간 사사하며 접한 도인들의 사적과 담론을 집성한 기록이다.¹⁴⁾ 해당 문헌은 환인(桓仁)을 동방선파(東方仙派)의 비조(鼻

12) 이동근 역, 『수이전』, 지식음판드는지식, 2011, 47면의 번역을 인용하되 일부 다듬었다.

13) 위의 책, 49면의 번역을 인용하되 일부 다듬었다.

14) 이석호 역, 『한국 기인전』 청학집, 명문당, 1990, 3면.

祖)로 상정하고, 그 연원이 환웅천왕과 단군으로 계승된다고 기술한다. 이후 영랑(永郎), 표공(瓢公), 탐시선인(昆始仙人) 등 고대 인물부터 최치원(崔致遠), 승려 정호(丁皓)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인의 계보를 제시한다. 또한 조선 시대의 정봉(鄭鵬), 정곤수(鄭崑壽), 윤군평(尹君平), 이유(李愈), 홍유손(洪裕孫) 등과 관련한 비범한 일화들을 상술함으로써 이인 담론의 역사적 지속성을 입증하고 있다.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은 한무외(韓無畏, 1517~1610)의 저술로,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에 의해 세간에 소개되었다.¹⁵⁾ 본서는 당(唐)에 유학했던 최승우(崔承祐), 김가기(金可紀), 승려 자혜(慈惠)가 종남산(終南山)에서 종리장군(鍾離將軍)으로부터 도(道)를 전수받은 사건을 도맥의 기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후 이러한 도의 전승은 김시습(金時習), 홍유손(洪裕孫), 정희량(鄭希良), 윤군평(尹君平) 등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계보를 살펴보면 윤군평은 광치허(郭致虛)에게, 정희량은 정렴(鄭謙)과 박지화(朴枝華)에게 각각 도를 전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저자인 한무외는 광치허로부터 도맥을 계승하여 내단(內丹)을 완성하였으며, 94세의 고령에 이르러 본서를 집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허균이 찬술한 다섯 편의 전(傳) 가운데, 이인의 서사적 형상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생전(張生傳)>과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¹⁶⁾

<장생전>의 주인공 장생은 사대부 가문에서 출생하였으나,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기층 사회로 축출되어 유랑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방랑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異蹟)을 보였으며, 특히 죽은 이후 시신이 벌레로 변해 소멸하고 의관(衣冠)만 남는 ‘시해(尸解)’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후 조령에서 홍세희에게 목격되어 자신의 생존과 타국으로의 행보를 알리고 사라지는 대목은 그가 세속적 생명의 법칙을 초월한 존재임을 입증한다.

15) 이종은 역, 『해동전도록·칭학집』, 보성문화사, 1986, 165면.

16) 조동일은 허균의 다섯 작품을 모두 소설로 보았지만, 박희병은 <남궁선생전>만 소설로 보았으며,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김영연의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전으로 보았다.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II)-설화·야담(野譚)·소설과 전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15권 2호, 일지사, 1989, 94~95면; 김영연, 『허균 ‘五傳’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한편,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사마시에 합격한 사족(士族)이었으나 사적 복수 사건에 휘말려 도피자로 전락한다. 그는 적상산에서 노승을 사사하며 7년간 방술을 연마하지만, 심리적 조급함으로 인해 완전한 득도(得道)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장생 불사의 가능성을 뒤로하고 유한한 인간의 삶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신이한 체험을 작가인 허균에게 구술한 뒤 용담(龍潭)으로 은거하며 자취를 감춘다. 이처럼 <장생전>과 <남궁선생전>은 비범한 행적의 나열과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지소종'의 결말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이인 설화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서사 문법의 한 요소이다.

17세기 전반에 편찬된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지봉유설(芝峯類說)』 등의 야담집 및 유서(類書)에는 전술한 이인들의 행적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¹⁷⁾ 특히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의 『해동이적(海東異蹟)』과 이를 증보한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증보 해동이적』은 단군 이래 100여 명에 달하는 이인들의 기이한 일화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⁸⁾ 이들 문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대표적 인물로는 최치원, 김시습, 홍유손, 정희량, 서경덕, 이지함, 광재우, 전우치, 윤균평, 남사고 등이 있으며, 이들의 사례를 통해 이인 담론이 지식인 사회에서 폭넓게 공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인소설은 이인설화의 서사적 토대를 계승하면서도, 자아와 세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설화와 뚜렷한 변별점을 지닌다. 이인설화가 비범한 인물의 기이한 행적을 보고하는 현상 기술적 차원에 머문다면, 이인소설은 주인공이 세속적 삶을 뒤로하고 산천(山川)이나 해도(海島)로 상정된 초월적 이상향으로 은거하는 결말의 서사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충돌하는 대결 의식이 본격화된 소설 장르의 미학적 본질을 투영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17)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화담 서경덕, 토정 이지함, 북창 정립, 한무외, 위한조 등을 들 수 있다. 화담, 토정, 북창은 각각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화담은 토정과 서기(徐起), 박지화를 제자로 두었다. 토정과 서기는 조헌(趙憲), 이남(李楠)과 교유하며 토정 그룹을 형성하고, 박지화는 북창 정립과 교유하며 동생 정작(鄭碯)을 지도했다. 이들은 정통 성리학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사상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무외와 위한조는 토정, 화담, 북창 이외에 별개의 유파를 형성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박희병, 앞의 글, 1989에 정리되어 있다.

18) 신해진·김석태 역주, 『증보 해동이적』, 경인문화사, 2011.

박지원의 <허생전(許生傳)>은 이인소설의 성격이 선명하게 투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¹⁹⁾ 작품의 주인공 허생은 가계의 곤궁함으로 인한 처의 질책을 계기로 학업을 중단하고, 한양의 부호 변씨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그는 과일과 말총 등을 매점매석(買占賣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한편, 도적 무리를 회유하여 무인도에 정착 시킴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비범한 역량을 과시한다. 나아가 섬에서 생산된 곡물을 일본과 교역하여 경제적 성취를 거두는 등 세속적 질서를 넘어서는 기이한 행적을 보인다. 이후 어영대장 이완(李浣)과의 조우에서 허생은 북벌(北伐)의 실적을 위한 세 가지 혁신적 선결 과제를 제시하나,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이완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자 그를 강력히 질타한다. 이튿날 이완의 재방문 시 허생이 이미 자취를 감춘 것으로 설정된 결말은 이인소설 특유의 ‘부지소중’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처럼 인물의 비범한 행보와 초월적 은거로 귀결되는 서사 구조는 『허생전』이 지닌 이인소설로서의 정체성을 여실히 입증한다.

III. 이인소설의 전개: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본고는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을 전술한 이인소설의 유형적 특성에 부합하는 핵심 텍스트로 상정한다. 다만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작품의 장르적 정체성과 유형 분류를 둘러싸고 다소 상이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주요 선행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각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특질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해당 작품들이 지닌 유형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1. <최고운전>

그동안 <최고운전>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주로 영웅소설의 범주 내에서

19) <허생전>은 조동일의 선행연구(1977)에서 이미 ‘일사소설’로 지목된 적이 있다.

전개되어 왔다. 박일용은 본 작품이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닐 뿐 아니라, 작품을 구성하는 개별 화소들이 후대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서사 단락들과 (...) 정합적으로 대응된다.”²⁰⁾는 점을 들어 <최고운전>을 영웅소설 유형에 귀속시켰다. 안창수 또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인물의 위대한 삶을 형상화했다는 측면에서 이를 영웅소설로 정의하였다.²¹⁾ 특히 <최고운전>의 창작 시기가 <홍길동전>에 선행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본 작품을 한국 영웅소설의 시원적 형태로 간주하려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운전>은 영웅소설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유충렬전>이나 <조웅전> 등과 는 변별되는 서사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본 작품의 유형론적 위상을 다각도에서 규명하려는 학술적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박일용은 <최고운전>을 ‘민중적 역사 영웅소설’로, <유충렬전>과 <조웅전>을 ‘통속적 창작 영웅소설’로 범주화하며 서사적 지향점의 차이를 구체화하였다.²³⁾ 김유진은 최치원을 ‘반영웅(Anti-Hero)’으로 규정하고, 영웅소설의 하위 범주로서 ‘반영웅소설’이라는 유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²⁴⁾ 이들의 연구는 영웅소설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민중성과 통속성, 혹은 영웅과 반영웅이라는 미시적 분과를 설정함으로써 이질적인 서사들을 영웅소설의 범주 내로 포섭하려는 방법론적 특

20) 박일용이 근거로 든 대응관계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최치원의 혈통과 영웅소설의 적강화소. 둘째, 태어난 후 버림받는 장면과 영웅적 인물의 부자갈등. 셋째, 나업의 종에서 사위가 되는 것과 영웅소설에서 조력자와의 만남. 넷째, 중국 황제와의 대결과 영웅소설의 군담에서의 승리. 다섯째, 중국으로 가는 도중에 신이한 인물들에게서 받는 원조와 영웅소설의 조력자.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6, 한국고전문학회, 1999, 171면.

21) 안창수, 『육망의 변증법적 전개양상을 통해 살펴본 <최고운전>의 특징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375면.

22) 김현룡은 <효빈잡기(效濱雜記)>의 기사를 토대로, <최고운전>의 창작연대를 1579년 이전으로 추정했다. 또 박일용은 『화동인물총기(話東人物叢記)>에 실린 “최고운사적”이 현전 <최고운전>의 초기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최고운전>의 창작 연대를 1389년 이전으로 추정했다. <최고운전>이 영웅소설 유형이라면, <최고운전>은 <홍길동전>보다 앞선 ‘최초의 영웅소설’이 된다.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박일용, 『<최고운전>의 창작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3) 박일용,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질』, 『국문학연구』 7, 2002.

24) 김유진, 『반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성 연구』,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107면.

징을 공유한다.

나아가 <최고운전>을 영웅소설과 전기소설(傳奇小說)의 결합체 혹은 독자적인 제3의 양식으로 파악하려는 논의도 제기되었다. 이정원은 본 작품을 “원숙기의 전기소설 양식과 형성기의 영웅소설 양식 사이에 조성된 긴장이 반영”²⁵⁾된 결과물로 정의하였으며, 강혜진 역시 <최고운전>이 전기소설이나 영웅소설의 관습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방식에 의해 고유한 서사 구조를 직조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²⁶⁾

본고는 <최고운전>이 이인소설의 전형적 구조를 견지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인소설의 맥락에서 고찰할 때 비로소 그 문학사적 위상과 의미를 온당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주지하듯 <최고운전>은 최치원의 부친 최충이 문창 수령 재임 중 금돼지에게 부인을 납치당하는 이른바 ‘금돼지 설화’ 화소를 서두에 배치하며 서사를 시작한다. 귀환한 부인이 최치원을 출산하자, 최충은 아이를 금돼지의 소생으로 의심하여 해변에 유기(遺棄)하기에 이른다.

최치원의 탄생 서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구비문학의 ‘야래자(夜來者) 설화’ 문법에 기반한 해석이다. 비록 작중 최치원은 금돼지와 외의 혈연적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야래자 설화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비세속적 존재의 소생이라는 신이한 출생 배경을 지니게 된다. 박일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의 서두에 설정된 이 설화적 이야기가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는 화소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²⁷⁾다고 강조하며, 금돼지 삽화를 주인공의 혈통적 신성함을 암시하는 영웅소설적 장치로 규정하였다.

둘째는 소설 텍스트의 문면(文面)을 중시하는 해석이다. <최고운전>에서 최치원은 임신 기간의 산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이 금돼지의 소생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변증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 금돼지 삽화의 기능은 주인공에게 신성성을 부여하는 데 있기보다, 유년기의 최치원이 부친으

25) 이정원, 『<최고운전>에 나타난 개인과 세계의 불화-장르 운동의 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270면.

26) 강혜진, 『<최고운전>에 나타난 문체 상황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 연구』, 『어문연구』 4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399면.

27) 박일용, 앞의 글, 1999, 149면.

로부터 유기당할 수밖에 없었던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 대목은 주인공이 가문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불우한 유년기를 시작한다는 이인소설 특유의 서사적 관습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당(唐) 황제는 석함(石函) 속에 계란을 봉인하여 신라로 보낸 뒤, 그 내용물을 알아맞히지 못할 경우 침략하겠다는 외교적 위협을 가하며 신라를 압박한다. 당시 최치원은 승상 나업의 가문에서 '파경노(破鏡奴)'로 지내고 있었다. 그는 마부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으며, 승상이 석함 문제로 국가적 난제에 봉착하자 그 해결을 조건으로 나업의 사위가 되는 신분적 보상을 요구한다.

왕이 보고서 이내 크게 놀라며,
 “경이 어떻게 알고 지었는가?”
 하니,
 “신이 지은 것이 아니오라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알아내어 지을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²⁸⁾

해당 대목에서 승상 나업이 자신은 감히 시를 짓지 못한다고 토로하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이인의 비범한 역량이 보편적 이성이나 세속적 척도로는 가늠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음을 의미하며, 그가 행하는 경이로운 행적이 범인(凡人)에게는 그저 미지의 초자연적 현상으로 서술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듯 주인공이 전개하는 신비로운 행적은 이인소설의 전형적인 인물 형상과 정합을 이룬다.

이후 최치원은 학업에 정진하여 문장에 통달한 뒤, 당으로 진출하여 탁월한 경륜을 펼치고 귀국한다. 그러나 환국 후 국왕의 행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정치적 탄압에 직면하자, 그는 가야산으로 은거하기에 이른다. 작품의 결말에서 그의 최후 종적을 이는 이가 없다고 기술된 점은, 세속과의 결

28) 정학성 역,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삼경문화사, 2000, 76면의 번역문 및 106면의 원문 인용. 王見之乃大驚曰, “卿何知而作也?” 曰, “非臣之所製, 乃臣婿郎之所作也. 臣何敢得知而作也.”

별을 통해 초월적 세계로 회귀하는 이인소설의 구조적 특징인 ‘부지소종’의 형식을 완결성 있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왕은,

“네가 공이 많아 차마 죄를 주지는 못하겠으니 이 이후로는 내 앞에 오지 말도록 하라.”

하고는 그대로 죄를 사면하였다. (….) 치원은 집을 버리고 도를 구하기 위해 가야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삶을 마쳤는지 알지 못한다.²⁹⁾

전술한 인용문은 <최고운전>의 종결부이다. 최치원이 속세를 이탈하여 가야산으로 입산한 뒤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서술 방식은, ‘최종적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거나 은거를 통해 자취를 감춘다’라는 이인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최고운전>의 전체 서사는 조동일이 ‘일사소설’의 유형적 요건으로 상정한 네 단계, 즉 ‘(가) 불행한 처지에서 태어났다. (나) 겉으로는 평범했으나, 사실은 비범했다. (다) 여러 가지 비범한 행적이 있었으나,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다. (라) 결국 불행하게 죽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서사 문법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고운전>은 비범한 역량을 지닌 주인공이 세속의 질서와 불화한 끝에 끝내 용납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인소설의 구조를 견지한다. 특히 주인공 최치원이 실제 다수의 이인설화에서 중심인물로 다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작품을 이인설화 및 허균의 ‘전’, 그리고 <허생전>으로 이어지는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실상을 가장 정교하고 적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하겠다.

2. <홍길동전>

<홍길동전>의 유형적 특징은 선행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바 있다.³⁰⁾ 본고는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자, 유형 분류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29) 위의 책, 98면 및 113~114면. 王曰, “汝有功多, 不忍加罪, 自今以後, 毋令如前.” 因以赦罪.

(…) 致遠棄家求道, 入伽倻山, 不知所終也.

30) 김동욱, 『<홍길동전>의 유형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195~220면.

그 성격을 간략히 재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홍길동의 출생 대목이 영웅소설의 '고귀한 혈통'과 이인소설의 '불행한 처지' 중 어느 범주에 인접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홍길동은 재상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서얼(庶孽)'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극심한 소외감과 열등의식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조동일은 이를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의 '비정상적 출생'으로 해석하였으나,³¹⁾ 본고는 이를 이인소설 유형의 전형인 '불우한 처지에서의 출생'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홍길동의 형상은 <소대성전>, <조웅전>, <유충렬전> 등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뚜렷한 변별점을 지니며, 오히려 허균의 이인소설 <손곡산인전>의 주인공 이달이 겪는 신분적 고뇌 및 서얼로서의 실존적 상황과 깊은 유사성을 띤다. 특히 적서 차별 문제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 의식을 고려할 때, <홍길동전>의 서두를 영웅소설적 '비범한 혈통'의 변주로 간주한 기존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홍길동전>의 결말 구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조동일은 주인공의 율도국 국왕 등극을 '영웅의 일생' 구조에 근거한 '성공한 결말'로 파악하였다.³²⁾ 그러나 홍길동의 행적이 조선 탈출 이후 곧바로 율도국 정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서사 과정을 정밀히 추적해 보면, 주인공은 율도국으로 향하기 전 '제도'라는 해상의 공간으로 우선 이동한다. 특히 판각본 8종³³⁾ 중 하나인 안성판 19장본의 경우, 홍길동이 병조판서 직을 수여받은 후 무리를 이끌고 제도로 거처를 옮

31) 조동일, 앞의 책, 1977, 289면. 주지하다시피 영웅소설은 "(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나)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했다. (다)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라)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마) 구출·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바)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사)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의 유형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32) 위의 책, 261면. "이와 아울러 율도국이라는 설정도, 비록 소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신화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율도국에서 전개되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그것대로 심각한 양상을 띠지 않고 홍길동의 승리를 장식해 준다는 점이 신화적이다. 신화가 남긴 이러한 흔적은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므로, 다음 시기의 소설에서 극복되리라고 생각한다."

33) 지금까지 알려진 <홍길동전>의 판각본은 경판30장본, 24장본, 23장본, 21장본, 17장본, 안성판23장본, 19장본, 완판36장본의 8종이다.

기며, 그 이후의 증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부지소종’의 방식으로 도중에 작품을 끝맺는 듯한 느낌을 준다.³⁴⁾ 이러한 서술이 단순한 판본의 누락이나 텍스트의 훼손이 아님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논증된 바 있다.³⁵⁾ 비록 이어서 울도국 정벌 서사가 이어지기는 하나, 불우한 서열로 태어난 주인공이 비범한 도술 행적을 보인 끝에 해상의 섬으로 은거하며 자취를 감추는 일차적 결말 구조는 허균의 전 작품군이 지향하는 서사적 문법과 대단히 유사하다.

과연 허균이 저술한 <홍길동전> 원전의 결말은 어떠한 이본(異本)의 형태에 근접했을 것인가. 본고는 <홍길동전>의 원형이 안성판 19장본의 서사 구조에 가까웠으며, 울도국 판권 대목은 후대에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적서 차별이라는 엄중한 사회적 모순을 핵심 제의로 상징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부에서 이를 개인적인 권력 욕망의 성취로 귀결시키는 방식은 서사적 인과 측면에서 다소 비약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홍길동전>의 전·후반부 서사가 지닌 모순적 구조에 대한 지적은 연구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이다. 이미 다수의 연구자가 울도국 삽화가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을 저해하며, 후대의 가탁이나 부연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³⁶⁾ 이에 본고는 허균에 의해 최초 창작될 당시

34) 김동욱 · W. E. Skillend · D. Bouchez 공편, 『고소설판각본전집』 3권, <홍길동전>, 1973, 444면. 각설, 홍길동이 부친 산소를 제 사히 피시고 조석제전(朝夕祭奠)을 지성으로 지니니 제인이 탄복 아니 리 업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삼상(三喪)을 마치고 무예를 연습하며 농업에 힘쓰니 슈년 지니미 병정양축(兵精糧足)하여 누 알니 업더라.

35)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 신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118~120면; 이현국, 『<홍길동전>에 있어서 울도국의 위상과 성격』, 『문학과 언어』 8,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7, 158면.

36) 이재수는 <홍길동전>의 병판제수 이후 서사가 “작품의 통일성을 결정적으로 파괴했을 뿐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이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형택은 울도국 정벌 장면이 군담소설처럼 서술된 점이나 홍길동의 최후가 신선이 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서술된 부분 등이 “출판업자들의 천박한 상업주의”에 의해 홍미분위로 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동욱은 <홍길동전>의 결말 부분이 “다른 교산소설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후기적이고 완결적”이므로 “울도국 이후의 전개는 후인의 가탁”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중균은 ‘해동이적 보’의 기록 등을 근거로 울도국 대목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165면;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상, 『창작과비평』 11권 4호, (주)창비, 479면;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 신동욱 편, 새문사, 1981, 96면; 김중균, 『해의개척 대도설화의 소설 유형 양상과 의미: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경우』, 『어문연구』

‘이인소설’의 지향을 지녔던 <홍길동전>이 후대에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서사 문법을 수용·통합하는 과정에서 율도국 정벌 서사가 첨가되었고, 이로 인해 장르적 정체성의 혼선이 야기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고찰할 <전우치전> 역시 후대에 영웅소설적 문법을 투영하여 변형된 결말을 지닌 이본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홍길동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르적 변이 현상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홍길동전>을 한국 ‘최초의 영웅소설’로 규정해 온 기존 소설사의 서술 방식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전우치전>

<전우치전>은 여타 작품에 비해 유형론적 논의에서 비교적 이견이 적은 편이다. 조동일의 선행 연구에서 본 작품을 이미 ‘일사소설’의 범주로 다룬 바 있어, 이를 이인소설의 전형으로 상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³⁷⁾ 다만 <전우치전>은 크게 ‘전운치전 계열’과 ‘전우치전 계열’로 분화되며, 각 계열 간의 서사적 편차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 시대에 보다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이본군은 ‘전운치전 계열’이다. 이 계열에는 일사본, 경판본(37장본·22장본·17장본), 신문판본 등이 포함되며, 전우치가 다작적인 도술적 행적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서경덕(徐敬德)을 사사하여 영주산(瀛洲山)으로 은거하는 구조를 취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 당대 독자층의 향유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경판 37장본을 중심으로 서사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인공 전우치는 유년기에 부친을 여의고 부친의 벗인 윤공(尹公)으로부터 수학한다. 이후 여우로부터 호정(狐精)을 탈취하고 천서(天書)를 습득함으로써 도술 역량을 확보한다. 본격적으로 도술을 부리게 된 전우치는 국왕을 기망하여 황금 대들보를 징발하는 대담함을 보이다가 하면, 오만한 유생들과 동료 선전관들을 농락하며 사회적 권위를 조롱한다. 다음은 전우치가 계절에 맞지 않는 과실을 취해 주변 인물들을 경악케 하는 장면이다.

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27~28면.

37) 조동일, 앞의 책, 1977, 282면.

설성 왈,
 “우리 비록 빈한하나 명기와 진찬이 만흐니 형은 처음 본 듯허리다.”
 운치 쇼 왈,
 “그러는 허거니와 오히려 미비호 거시 만토다. (….) 서늘호 슈박도 업고, 시곰
 호 복성화와 달곰호 포도도 업스니, 무어시 가즈리오?”
 제성이 디쇼 왈,
 “형은 무지각이로다. 츠시는 계춘이라. 이 실과 등이 어디 이스리오?”
 운치 (….) 종즈를 다리고 호 동산의 가본죽 남게 복성혜 달녓거늘, 종즈로 호
 여곰 남게 올라 짜서 지이고, 그 아리 포되 거즈의 드리웁스미 또 짜서 지이고,
 드을노 내려간죽 슈박이 녃출의 열녓거늘 이십 기를 짜서 지이고 도라오니, 제
 인이 디경호여 먹으며 가장 신긋히 녃기더라.³⁸⁾

상기 인용된 대목은 포송령(蒲松齡, 1640~1715)의 『요재지이(聊齋志異)』
 에 수록된 『투도(偷桃)』³⁹⁾ 일화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명대(明代)에는
 ‘천궁투도(天宮偷桃)’라 불리는 환술(幻術)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천상계 서
 왕모(西王母)의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훔쳐 온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마술적 공연이었다. 당시의 환술사는 하늘을 향해 새끼줄을 던져 고정시
 킨 뒤, 이를 타고 승천하여 복숭아를 탈취해 오는 기예를 선보였다. <전우치
 전>에 묘사된 전우치의 술법 역시 이러한 환술적 기법과 궤를 같이하며 대
 중의 경탄을 자아내는데, 이는 17세기 말 이후 신선전(神仙傳) 등에서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호기 취향(好奇趣向)이 투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⁰⁾

서사의 종결부에서 전우치는 화담(花潭) 서경덕과의 도술 대결에서 패배
 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수용한다. 이후 모친의 별세에 따른 삼년상을
 정성껏 마친 주인공은, 세속의 연을 뒤로하고 도를 닦기 위해 영주산(瀛洲
 山)으로 은거한다. 이러한 결말은 비범한 행적을 보이던 이인이 최종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이인소설의 정형적 서사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화담 왈,

“니 이번은 살니거니와 다시 그런 무상호 일 형치 말고 그디 모친을 봉양하

38) 김현양 역,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229~230면.

39) 포송령 지음, 김혜경 옮김, 『요재지이』 5, 민음사, 2002, 118~122면.

40) 박희병, 앞의 글, 1989, 88면.

가 그더 모친이 기세 후의 날과 영주산의 드러가 선도(仙道)를 닦그미 엇더호노?
운치 왓,

“선싱의 교훈디로 봉헿헿리이다.”

호고 인호여 하직호 후의 집의 도라와 요술를 헿치 아니호고 모친을 봉양호
더니, 세월이 여류호여 운치 모부인이 졸호니 (...) 선영(先塋)의 하직호 후의 화
담을 뵈서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호니, 기후스(其後事)는 아지 못호니라.⁴¹⁾

상기 인용문은 조선시대에 광범위하게 향유되었던 ‘전운치전 계열’ 경판 37장분의 결말부이다. ‘전운치전 계열’을 준거로 삼을 때, <전우치전>은 이 인소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인공 전우치의 자발적인 도술 습득과 신이한 행적, 그리고 속세를 함구하고 영주산으로 은거하는 결말 구조는 이인소설의 전형적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손본, 사제동본, 박순호본 등이 포함되는 ‘전우치전 계열’은 전우치가 중국 황제와 대적한 끝에 연왕(燕王)으로 등극하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해당 계열에서 전우치는 중국 천자로부터 일각로 관직을 제수받고, 연왕의 부마 및 훈련대장을 역임하며 조선의 부모를 봉양하는 등 세속적 영달을 누린다. 이후 연왕의 승하와 함께 그 왕위를 계승하며 서사가 종결된다.

잇썩 감식 부뷔 우치의 소식 몰노 주야 호탄호더니, 호로는 말소리 요란호거
늘 밧비 노가 보니, 수천 병마 등이 우치의 서간을 올니거늘 썩여보니, 연왕의
부마된 말이며, 훈련대장 우호여 잠시 썩나지 못호옵로 위의만 보니오니, 밧비
헿츠호흡소서 호엿더라. 감스와 부인이 못니 반기시고 길을 츠려 발헿호니라. 잇
썩 우치 부모 헿츠를 기다리랴 빅니 밧기 마져 뵈시고 도려오니라.

홍진비릭은 고급의 송스라, 연왕이 늑십오세에 호호시니, 우치 즉위호제 습년
의 아들 형대를 노회니 점점 즈라미 일일죽 인민 안보홀 도리로 부왕게 간호니,
효성이 일국의 즈즈호더라.⁴²⁾

상기 인용문은 ‘전우치전 계열’에 속하는 나손본 <전우치전>의 결말부이다. 이는 당대 통속적인 영웅소설의 대중적 인기에 부응하여 해당 장르의

41) 김현양 역, 앞의 책, 2010, 279~280면.

42) 나손본 <전우치전>. 조동일 편, 『전우치전』, 시인사, 1983, 167~168면.

서사 문법을 수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비교적 후대의 변개(變改) 양상으로 추정된다.⁴³⁾ 즉, <전우치전>의 원초적 형태는 주인공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부지소중’의 결말을 지닌 이인소설적 성격이 강했으나, ‘전우치전 계열’의 특정 이본들이 후대에 이르러 영웅소설의 서사 관습을 차용함으로써 전우치가 연왕으로 등극하는 세속적 성취의 결말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홍길동전>의 경우 울도국 정벌을 통한 왕위 등극이라는 영웅소설적 결말이 대다수 이본에서 주류적 양상으로 정착한 것과 달리, <전우치전>은 극소수의 필사본에서만 이러한 장르적 변용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서사적 전개 양상의 차별성을 보인다.

IV. 이인소설의 서사적 특징과 미학적 지향

1) 자발적 수련과 주체적인 역량 확보의 서사

『소학(小學)』에는 군주와 스승, 그리고 부친의 은혜를 동일한 위상에 놓은 대목이 존재하며,⁴⁴⁾ 이는 후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관념적 기틀로 정립되었다. 당대의 지배이념을 투영하는 문학작품에서도 이들 세 존재는 이데올로기적 표상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례로 17세기 장편소설인 <구운몽>, <소현성록>, <창선감의록> 등은 주인공이 가부장적 권위를 획득하며 성장하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군에서 ‘부친’은 곧 ‘지배이념’을 상징하며, ‘부친의 부재’는 “지배이념이 권위를 잃고 지배 체제가 위기에 빠진 17세기 조선의 비정상 상태”⁴⁵⁾를 함의한다. 따라서 주인공이 가부장으로 입신(立身)하는 서사 경로는 당대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윤리 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대적 과업의 성취 과정을

43)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 『한민족어문학』 18, 한민족어문학회, 1990, 232~233면;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103면.

44) 『소학』, 『명륜』 103장. 欒共子曰,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

45) 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렘, 2016, 325~329면. 정길수는 17세기에 창작된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이 모두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부장적 위계와 마찬가지로 ‘스승’의 형상 또한 지배이념에 대한 작품의 지향점을 가늠하는 분석적 시금석이 된다. 이인소설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스승에 대한 서사적 언급이 결여되어 있거나, 스승보다 제자인 주인공의 탁월한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고운전>의 경우, 주인공 최치원이 출생 직후 해변에 유기되는 ‘기아(棄兒) 모티프’를 통해 부친과의 단절이 먼저 제시된다. 이후 부친 최충이 아들을 위해 바다가에 누각을 건립해 주자, 천상에서 하강한 수천 명의 선비가 최치원에게 학문을 전수하는 초월적 학습의 과정이 전개된다. 이는 인간 스승과의 위계적 사승(師承) 관계를 탈피하여 주인공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인소설 특유의 서사적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닷새가 지난 뒤 하늘에서 보낸 선비 수십 명이 대 위에 구름 같이 모여 각각 배운 바를 그 아이에게 다투어 가르치니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문리를 깨치고 드디어 문장을 이루었다. 늘 쇠막대기를 가지고 대 아래의 모래에 천(千) 글자를 써서 세 자쯤 되는 쇠막대가 거의 반 자가 되었다.⁴⁶⁾

<최고운전>의 주인공 최치원이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그의 스승이 ‘수십 명의 선비’라는 익명적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군담소설의 서사 문법에서는 특정 승려나 도사가 주인공에게 도술을 전수하고, 사후적 위기 상황에서 조력자로 재등장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최고운전>에서는 스승의 실체적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은 서두에 일시적으로 등장할 뿐 이후 서사에서 배제되며, 오히려 최치원이 그들의 유일한 제자라는 설정을 통해 주인공의 독보적 위상이 더욱 부각된다. 또한, 해당 작품은 스승의 교수(教授) 행위보다 최치원의 자발적인 연마 과정을 강조한다. 기다란 철제 지팡이가 마모될 정도로 백사장에서 글쓰기에 정진했다는 일화는 주인공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학습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즉, <최고운전>은 특정 조력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46) 정학성 역, 앞의 책, 2000, 64면의 번역문 및 101면의 원문 인용. 遷居五日, 天儒數十, 雲集臺上, 各以所學號教, 由是大悟文理, 遂成文章. 常以鐵杖每書千字于臺下沙中, 三尺之杖, 幾至半尺矣.

주인공의 자기주도적 성취를 서사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홍길동전>에서도 유의미하게 발견된다. 홍길동은 자객의 습격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별도의 사승 절차 없이 습득한 둔갑술과 주문을 사용하여 대응한다. 조동일은 이를 두고 주인공의 도술적 능력을 “자아로 하여금 신화적인 능력을 갖도록 하는 신화적인 전제”⁴⁷⁾, 즉 선천적 부여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중 홍길동이 『육도(六韜)』, 『삼략(三略)』, 『주역(周易)』 등의 텍스트에 침잠(沈潛)하며 후천적 학습에 매진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이러한 학습이 외부의 지도 없이 독학(獨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 살핀 <최고운전>의 최치원과 서사적 맥을 같이하는 지점이다.

한편, <전우치전>의 전우치는 부친의 사후 부친의 친우인 윤공으로부터 유교적 기초 교양을 전수받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초월적 능력은 이례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된다.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의 호정을 삼취함으로써 천문지리에 통달하게 되거나, 세금사의 구미호를 위협하여 신물(神物)인 천서를 탈취 및 학습하는 과정이 그러하다. 이는 정통적인 사승 관계를 통한 학습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나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초월적 역량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서사적 변별성을 지닌다.

운치 바다본 즉 턴세라. 글즈를 아라볼 길 업스미 구미호더러 글 뜻을 가르치라 하니, 구미회 왈,

“순을 글너노흐면 가르치리이다.”

흐거늘, 운치 송곳츠로 찌르며 방쥬(方錘)를 드니 구미회 허락흐미, 운치 노홀 그르지 아니호고 왈,

“나 잇는 절노 가즈.”

흐고 구미호를 다러 세금스로 와서 술를 마신 후의 구미호를 안치고 턴서 상권(上卷)을 빠휘 일야간(一夜間)의 다 통달(通達)하니, 진짓 귀신(鬼神)도 측낭(測量)치 못홀 술법(術法)이라.⁴⁸⁾

상기 인용문에서 전우치가 구미호를 위협하여 천서를 탈취하고 이를 통

47) 조동일, 앞의 책, 1977, 261면.

48) 김현양 역, 앞의 책, 2010, 217면.

해 도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앞서 고찰한 <최고운전> 및 <홍길동전>의 서사적 장치와 그 궤를 같이한다. 즉, 체계화된 스승 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주인공의 독자적인 역량 확보 과정이 부각되는 것이다. 작중 부친의 친우인 윤공은 유교적 소양을 전수할 뿐 도술적 능력의 전수자로 기능하지 않으며, 호정이나 천서를 매개로 얽힌 여우 및 구미호와의 관계 역시 사제 관계라기보다는 대립적·약탈적 관계에 가깝다. 요컨대 전우치의 초월적 능력 획득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지점은 외부의 조력이 아닌 주인공 자신의 주체적인 쟁취와 연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인소설 유형의 작품군에서는 공통적으로 스승의 존재가 소거되거나, 스승보다 제자인 주인공의 위상이 압도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최고운전>과 <홍길동전>에서 확인된 주체적 학습 모델은 허균의 <엄처사전>, <손곡산인전>, <장산인전>, <장생전> 및 박지원의 <허생전>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스승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거나 <남궁선생전>과 같이 스승의 가르침이 오히려 실패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⁴⁹⁾ 이러한 서사적 공통분모는 지배 이념의 표상으로서 군주·부친과 동일시되는 '스승'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인소설은 '군사부일체'로 대변되는 당대 주류 이데올로기와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타 소설 장르인 가문소설이나 군담소설의 의식 지향과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이다. 가문소설의 경우, 주인공에게 선천적 비범성을 부여함으로써 후천적 학습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는 해당 장르를 향유하던 최상층 집단의 폐쇄적 선민의식을 투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반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군담소설은 특정 스승을 천상계와 주인공을 매개하는 절대적 권위자로 설정한다. 군담소설의 스승은 무력한 상태의 주인공을 비범한 존재로 도약시킬 뿐 아니라 위기 시마다 초월적 조력자로

49) <엄처사전>, <손곡산인전>, <장생전>에는 주인공의 스승에 대한 서술이 없으며 그들이 스스로 제주를 이룬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장산인전>의 장한웅은 지리산의 이인을 만나 연마법을 배우기는 했으나, 그 전부터 부친이 남겨 둔 <옥추경>과 <운화현추>를 혼자 수만 번 읽어 귀신을 부릴 수 있었다. <남궁선생전>의 남궁두는 스승으로부터 신선술을 배우지만 실패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면 지상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만 자기 의지에 따라 평범하게 사는 길을 선택한다.

등장하는데, 이는 중하층 대중 독자들이 지닌 의존적 영웅 대망론(待望論)의 서사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인소설이 견지하는 주체적 학습과 사승 관계의 부정은, 기존의 선민의식이나 타율적인 구원 서사를 거부하는 독자적인 의식 세계의 산물이라 판단된다.

2) 도술의 경이적 발현과 현실 초극(超克)의 미학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인’의 사전적 정의는 “재주가神通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이러한 비범성을 형상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사적 장치는 ‘도술(道術)’의 활용이다. 본래 도술은 도교적 연원을 지닌 방술(方術)을 지칭하나, 조선시대 고전소설에서는 도교를 비롯하여 유교, 불교, 무속 등 다층적인 종교적 성격이 혼합된 술법이 다수 등장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처럼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술법들을 엄밀히 분별하기보다는 ‘도술’이라는 포괄적 범주로 명명해 왔다.

이인소설에서 재현되는 도술은 가문소설이나 군담소설과 달리, 초월적 능력에 무지한 비(非)초월적 존재를 대상으로 발휘된다는 점에서 그 경이적 속성이 더욱 강조되는 특징을 지닌다. <최고운전>에서 최치원이 중국 황제를 압도하고 신라로 귀환하는 대목은 이러한 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황제가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하며 군신(君臣) 관계의 위계적 권위로 최치원을 복속시키려 하자, 최치원은 허공에 ‘일(-)’ 자를 긋고 그 위로 상승하는 도술을 선보임으로써 황제의 굴복을 이끌어낸다.

황제는 선실(宣室)로 나와 치원을 불러,

“경은 석 달 동안이나 어찌 꿈속에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옛말에 ‘온 하늘 아래에는 임금의 신하 아닌 사람 없고, 온 세상 땅에는 임금의 땅 아닌 곳이 없다’ 하였다. 너는 신라인이나 신라도 나의 영토요, 네 임금도 내 신하이거늘, 네가 나의 사신을 꾸짖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치원이 허공 중에 한 일[-]자를 긋고는 그 위에 뛰어올라,

“여기도 폐하의 땅이요?”

하니 황제가 놀라 용상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였다.⁵⁰⁾

50) 정확성 역, 앞의 책, 2000, 96~97면의 번역문 및 113면의 원문 인용. 帝御宣室, 問致遠曰,

상기 장면은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서사적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삽화는 『신선전』에 수록된 ‘등공(騰空) 설화’를 변용·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전』에서 하상공(河上公)이 한(漢) 문제(文帝)의 세속적 권위 강요에 맞서 공중으로 등천(登天)하며 ‘도(道)’의 우월성을 실증했듯이, <최고운전>의 최치원 역시 세속적 지위는 높으나 도술적 세계에 무지한 중국 황제를 신이한 능력으로 제압한다. 이는 세속적 지배 권력의 강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초월적 능력을 통한 대결적 승리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사적 의미를 지닌다.⁵¹⁾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함천 해인사와 함경감영의 재물을 탈취하고 우포장 이흡을 희롱하는가 하면, 조선 팔도에 여덟 명의 분신을 출현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당대의 관료 집단은 홍길동의 도술적 위력 앞에 전적으로 무력화되며 대응의 한계를 노출한다. 여기서 홍길동의 도술은 일반인의 인지 범주를 상회하는 영역에 위치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타자를 경악케 하는 경이적 속성이 발생한다. 이는 <최고운전>의 최치원이 보여준 도술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도술의 본질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 기예로 서술되고 있다.

<전우치전>에 재현된 도술 역시 그 대상이 도술에 무지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최고운전>, <홍길동전>과 서사적 궤를 같이한다. 일례로 소생과 설생이 전우치에게 오만한 태도를 견지하자, 전우치는 도술을 발휘하여 그들을 곤궁에 빠뜨린다.

운치 쇼 왈,
 “냥형은 노치 말고 손을 바지 속의 너허 만져보라.”
 하니 설생이 이 말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다가 쇼싱더러 왈,
 “신랑(腎囊)이 간 더 업고 관관하니 이 엇진 일이뇨?”
 쇼싱이 보아지라 흐거늘, 싱이 니여 뵈니 과연 아모 것도 업스미 쇼싱이 또한 제 하물(下物)를 만져본즉 역시 그러흐지라.⁵²⁾

“卿在三月，何不見夢寐耶？語云，‘普天之下，莫非王臣，普天之下，莫非王土。’汝新羅之人，新羅亦我之地也，汝君亦我之臣也。而叱我之使者，何如？”致遠畫一字空中，躍居其上曰，“是亦陛下之地乎？”帝大驚，下床頓首謝之。

51) 김유진, 『<최고운전>의 서사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6~58면.

52) 김현양 역, 앞의 책, 2010, 231면.

인용문에서 소생과 설생이 전우치의 도술적 개입으로 인해 직면하는 고초는 이인소설 특유의 도술적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은 도술의 효용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평범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실증하며, 결과적으로 <전우치전>의 도술적 장치가 앞서 살핀 <최고운전>이나 <홍길동전>과 장르적으로 유사한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전술한 논의를 종합하면,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에 재현된 도술은 공통적으로 초월적 기예에 무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휘된다. <최고운전>의 주인공 최치원은 도술적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신이한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상에게 인식적 충격을 부여한다. <홍길동전>의 홍길동 역시 작중 세계관 내에서 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독보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우치전>의 경우 군주와 조정의 관료, 유생과 양민에 이르기까지 서사 내 일반인들은 전우치가 현현(顯現)하는 도술적 경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 이인소설의 도술 삽화는 주인공의 초월적 행위가 일반인을 경악케 하며 종결되는 서사적 문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경이성이 강조된 도술 삽화는 이인설화로부터 전승된 장르적 특질에 해당한다. 『수이전』에 수록된 <죽통미녀>, <노옹화구> 등의 설화는 경이로운 도술적 사건을 객관적 사실로 기술하며, 김유신과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을 서사 내로 소환함으로써 서술의 신빙성을 확보한다. 이는 당대 지식 체계로는 규명할 수 없는 초월적 현상과 존재가 실제함을 역설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이인설화의 도술은 이 세계와 대비되는 유명세계(幽冥世界)나 초월적 공간의 실재를 전제하며, 이러한 서술 방식은 현존하는 지배 질서를 상대화하고 대안적인 세계상을 구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성 질서에 항거하는 전복적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의 주인공들이 지배 체제의 정점인 군주와 대립하는 구도를 취하는 것은 필연적인 서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신선전』의 ‘등공 설화’를 변용한 <최고운전>의 상승 장면은 최치원이 황제의 세속적 권위를 거부하고 그의 지배 담론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최치원이 신라로 귀환

하여 국왕과 충돌하는 과정 역시 주목을 요한다. 국왕을 사냥꾼과 변별되지 않는 존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군주를 평범한 주체로 격하시킴으로써, 군신 간의 상하 위계를 절대화하던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다.

<홍길동전>의 경우, 주인공 홍길동은 초인(草人) 분신을 통해 국가 권력을 기망하고, 국왕 앞에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케 함으로써 통치권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특히 홍길동이 도적을 검거하는 포도청의 실질적 인사권을 지닌 병조판서 자리를 요구한 것은 조정의 행정 및 치안 권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홍길동전> 또한 지배 체제에 대항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서사적 공격성의 수위 면에서는 <최고운전>이나 <전우치전>보다 수위가 낮은 편이다.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기 전 국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는 대목은 군주의 권위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타협적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우치전>에서 주인공 전우치는 국왕에게 가공의 황금 대들보를 헌상하여 통치 권력을 기망하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가 구금된 병을 끊는 기름 속에 투입하라는 어명에 대해 오히려 '빈한한 처지에 온기를 제공해 준 은혜가 망극하다'고 응대함으로써 군주의 권위를 냉소적으로 조롱한다.

상이 던지흐스 가마의 기름을 쓰리고 쇼용병을 너흐니 병 속의셔 위여 왈,
“신의 집이 빈한호와 주야 썰고 지니옵터니 금일은 더운 더 드러 녹이오니 국은이 망극호여이다.”⁵³⁾

상기 인용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우치는 생사적 위기의 순간을 도술적 능력을 통해 역설적인 감사로 치환하며 국왕을 심리적으로 농락한다. 이후 도술을 부려 그림 속으로 은신함으로써 지배 체제의 물리적 구속으로부터 영구히 일탈한다. 이는 국왕으로 표상되는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이 서사적으로 형상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할 때, 이인소설은 당시의 지배 체제 및 이념에 대해 반발하거나 대안적 질서를 모색했던 계층의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음이 확

53) 김현양 역, 앞의 책, 2010, 224~225면.

인된다. 이인소설은 주류 이념인 유교와 이질적인 도교 및 신선술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이들 작품에 내재된 사상적 특질은 도교, 방술, 환술 등이 다층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특정 단일 체계로 귀결시키기 어렵다는 복합성을 지닌다. 조동일은 이인소설의 주요 향유층으로 “빈곤한 사대부, 중인, 아전, 천민”⁵⁴⁾ 등을 지목한 바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면서도 비판적 지성을 견지했던 ‘방외인’ 계층으로 포괄될 수 있다. 결국 이인소설은 당대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방외인 계층의 사상적 지향과 세계관적 욕구를 대변하는 문학적 산물이라 판단된다.

V. 결론

조동일은 주몽·탈해 신화 및 <바리공주>와 같은 서사무가를 포함한 한국 서사 전통 전반에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관통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러한 서사 구조를 공유하는 작품군을 ‘영웅소설’로 명명하며, 고전소설 중 <구운몽>, <금방울전>, <숙향전>, <유충렬전>, <홍길동전>과 더불어 신소설 <혈의 누>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⁵⁵⁾

조동일이 제시한 영웅소설의 개념은 해당 유형이 중국이나 서구와 차별화되는 “우리 것의 특징이 분명”⁵⁶⁾하다는 점에 논의의 중심을 둔다. 특히 <홍길동전>에는 “수호전의 영향이 있었다 해도 전혀 부차적인 것”⁵⁷⁾으로서, ‘삽화나 표현어구의 차용’ 정도에 불과하다⁵⁸⁾고 본다. 이를 통해 조동일은 소설이라는 근대적 장르의 기원을 외부(중국 연의소설)가 아닌 내부(민족적 서사 전통)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고대 신화부터 근대 신소설에 이르는 문학사를 하나의 동질적인 맥락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였다. 결국 영웅소설론은 식민사관을 불식하고 민족

54) 조동일, 앞의 책, 1977, 243면.

55)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56) 위의 글, 211면.

57) 위의 글, 212면.

58)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72면.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문학사적 기획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시대적·학술적 배경은 해당 이론이 학계의 통설로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조동일이 신화, 서사무가, 고전소설 사이의 동질성을 논증하기 위해 제시한 분석적 근거는 ‘구조적 상동성(Structural Homology)’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견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우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존재한다.⁵⁹⁾ 이는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닌 세계 서사 문학 전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구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운몽>이나 <숙향전> 등 상이한 성격의 작품들까지 영웅소설의 범주에 포괄할 경우 분류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소설 대다수가 해당 범주에 함몰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⁶⁰⁾ 아울러 건국신화의 7개 구조적 항목이 소설에서도 동일하게 기능한다는 주장은 서사적 실재와 괴리되는 측면이 있으며,⁶¹⁾ 신화와 소설 간의 장르적 위계와 서사적 비중의 차이로 인해 양자 간의 완벽한 구조적 상동성을 증명하는 데에는 학술적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21세기에 이르러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학술적·시대적 절대성은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⁶²⁾ 본고는 이러한 학문적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관습적인 소설사 서술 체계에서 탈피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영웅소설’이라는 유형적 범주에 의존하지 않고도

59) 김열규, 『민담과 이소설의 구조』,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58면. 김열규는 주몽신화, 탈해신화, 바리공주 무가 등을 서구의 설화를 분석하여 도출된 H-R-L-C 유형으로 살핀 바 있다. H-R-L-C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고귀로운 혈운(血胤)이 되 그 회임에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회임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2. 현몽 혹은 탁선(託宣) 3. 기아(棄兒) 4. 하천민 혹은 야수에 의한 수유(授乳) 및 수양(收養) 5. 개선의 귀향과 복수 6. 도읍장건 7. 이례적인 죽음”

60) 서대석, 『영웅소설의 전개와 변모』,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331면. 서대석은 주인공이 집단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우만 주인공의 인물형을 ‘영웅’으로 볼 수 있기에 <구운몽>, <숙향전> 등의 작품은 영웅소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다.

61)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1, 6~7면;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 박사논문, 1993, 51면, 77면; 전성운, 『장편국문소설의 변모와 영웅소설의 형성』, 고려대 박사논문, 2000, 6~7면.

62) 이에 대한 연구 성과로 김홍규의 저술을 들 수 있다. 김홍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 식민지 근대성론과 내제적 발전론에 대한 이중비판』, 창비, 2013.

국문소설사의 체계적인 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증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선행 연구가 상정한 ‘주몽 신화 - <홍길동전> - 조선 후기 영웅소설 - 신소설’로 이어지는 계보학적 층위에서, <홍길동전>은 ‘이인소설’의 변용으로, <유충렬전> 및 <조웅전>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웅소설은 ‘군담소설(軍談小說)’ 유형으로 각각 재분류될 수 있다. 이는 영웅소설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상정하지 않고도 국문소설사의 재구성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영웅소설 범주를 배제한 조선 후기 국문소설사는 어떠한 체계로 기술되어야 하는가? 조선 후기 국문소설을 형태적 층위에서 장·단편으로 구분할 경우, 장편 서사의 주류는 ‘가문소설(家門小說)’로 명명되는 일군의 국문 장편 서사군이 점유하며, 단편 서사의 중심 유형은 당대 대중적 향유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던 군담소설이 될 것이다.

조선시대 장편소설의 전형인 가문소설에서 주인공의 초월적 역량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가문소설의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적강(謫降)을 통해 형상화되며, 출생 시부터 신이한 능력을 체현한 신화적 인물로 설정된다. 이들은 별도의 후천적 수련이나 도구적 매개 없이도 초월적 능력을 발휘한다. 반면 주인공과 대립하는 세력은 심산유곡에서 장기간 도술을 연마한 요사스러운 무리로 설정되는데, 이들은 ‘사불범정(邪不犯正)’ 및 ‘요불승덕(妖不勝德)’의 논리에 의해 주인공의 형이상학적 우월성 앞에 필연적으로 무력화된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가문소설의 주 향유층이었던 상층 지배계급의 선민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후천적 노력을 통해 비범성을 획득하려는 존재를 ‘사(邪)’로 규정하고 배척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고 차별적 질서를 문학적으로 정당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단편소설의 주류를 형성한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능력이 후천적으로 획득된다는 점에서 가문소설과 궤를 달리한다.⁶³⁾ 초기에는 무

63) 군담소설은 영웅소설과 구별이 잘 되지 않아 일부 연구자는 이를 영웅군담소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애초에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생’ 구조를 지닌 작품으로서 <구운몽>과 <숙향전>, <혈의 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군담소설은 군담이 주된 내용이 된 작품으로, 김동욱의 선행연구에서는 군담소설의 유형구조를 ‘도술학습 - 무기습득 - 도술전투’ 화소의 연계로 제안하였다. 김동욱, 『군담소설의 도술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력한 존재로 설정된 주인공이 스승으로부터 도술을 전수받거나 신이한 무기를 획득함으로써 비범한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이 핵심 서사를 이룬다. 적대자 역시 대등한 수준의 초월적 능력을 보유하여, 이들 간의 대결은 유희적 흥미를 자극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신마소설(神魔小說)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지배 이념의 비판이나 정립보다는 대중 독자의 통속적 욕망과 유희성에 부합하는 서사적 전략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인소설은 앞서 살핀 두 유형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의식 지향을 내포한다. 이인소설의 주인공은 특정 스승이나 외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자발적인 계기나 독학을 통해 역량을 구축한다. 특히 스승과의 위계적 사승 관계가 해체되거나 약화되어 나타나는 점은 이인소설의 중요한 변별점이다. 이는 사제 관계를 넘어 군신·부자 관계의 절대성을 강조하던 주류 이념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를 함의한다. 또한, 도술에 무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휘되는 도술의 경이성은 기성 질서를 상대화하는 전복적 성격을 띠게 된다. 결국 이인소설은 당대 지배 질서에서 소외되었으나 비판적 세계관을 견지했던 '방외인' 계층의 의식적 지향이 투영된 문학적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고는 조선 후기 소설사 기술에서 '영웅소설'이라는 범주가 지닌 필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영웅소설이라는 단일 유형이 소설사를 주도했다는 기존의 통설에서 벗어나, 가문소설·군담소설·이인소설 등 상이한 세계관을 지닌 담론들이 상호 경합하고 교차했던 역동적인 공간으로 소설사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웅소설론 중심의 기존 구도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각 유형의 보편적 양상에 대한 시론(試論)적 고찰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보다 정교하고 총괄적인 소설사 재구성 작업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동욱 · W. E. Skillend · D. Bouchez 공편, 『고소설관각본전집』 3권, <홍길동전>, 1973.
- 김현양 역,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 성백효 역, 『소학』, 전통문화연구회, 2010.
- 신해진 · 김석태 역주, 『증보 해동이적』, 경인문화사, 2011.
- 이동근 역, 『수이전』, 지식음만드는지식, 2011.
- 이석호 역, 『한국 기인전 · 청학집』, 명문당, 1990.
- 이종은 역, 『해동전도록 · 청학집』, 보성문화사, 1986.
- 『육당 최남선 전집』, 역락, 2003.
- 조동일 편, 『전우치전』, 시인사, 1983.
- 정확성 역,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삼경문화사, 2000.
- 포송령 지음, 김해경 옮김, 『요재지이』 5, 민음사, 2002.

2. 단행본

-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문학』, 집문당, 1999.
-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 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렘, 2016.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_____,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3. 논문

- 강혜진, 「<최고운전>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 연구」, 『어문연구』 4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 373~402면.
- 김동욱, 「<홍길동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허균의 문학과 혁신사상』, 신동욱 편, 새문사, 1981.
- _____, 「군담소설의 도술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홍길동전>의 유형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195~220면.
- 김영연, 「허균 ‘五傳’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 김유진, 「<최고운전>의 서사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반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성 연구」, 『고소설연구』 49, 한국고소설학회, 2020,

107~139면.

- 김중균, 『해외개척 대도시화의 소설 유입 양상과 의미』,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2006, 5~35면.
- 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28면.
-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68~195면.
- 문범두, 『<전우치전>의 이본 연구』, 『한민족어문학』 18, 한민족어문학회, 1990, 227~256면.
-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6, 한국고전문학회, 1999, 145~176면.
- _____,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적 특질』, 『국문학연구』 7, 2002, 125~152면.
- _____, 『<최고운전>의 창작시기와 초기본의 특징』,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85~115면.
-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I)-설화·야담(野譚)·소설과 전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14권 4호, 일지사, 1988.
- _____, 『이인설화와 신선전(II)-설화·야담(野譚)·소설과 전 장르의 관련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15권 2호, 일지사, 1989.
- 송성욱, 『<홍길동전> 이본 신고』, 『관악어문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105~125면.
- 안창수, 『육망의 변증법적 전개양상을 통해 살펴본 <최고운전>의 특징과 그 소설사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347~394면.
- _____, 『<전우치전>으로 살펴본 영웅소설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73~116면.
- 이정원, 『<최고운전>에 나타난 개인과 세계의 불화』,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247~274면.
- 이현국, 『<홍길동전>에 있어서 율도국의 위상과 성격』, 『문학과 언어』 8,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7, 137~164면.
- 임형택, 『<홍길동전>의 신고찰』 상, 『창작과비평』 11권 4호, (주)창비, 475~490면.
-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165~214면.
- 최삼룡, 『이인설화 출현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어문논집』 18권 1호, 안암어문학회, 1977, 77~103면.

A Study on the Figures of Iin (Extraordinary Persons) and the
Narrative Identity of Iin-oseol (Tales of Extraordinary Persons)
in Korean Classical Novels

Kim, Dongwook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concept of Ilsa-oseol (Tales of Recluse Scholars) systematized by Cho Dong-il and proposes the term Iin-oseol (Tales of Extraordinary Persons) for its superior academic versatility and intuitive clarity. The term Iin refers to individuals or groups who possess extraordinary abilities, such as dosul (magic) or bangsul (thaumaturgy), and maintain a critical distance from the dominant ideology of their time.

The origins of Iin legends are found in works such as Juktong minyeo (The Beauty in the Bamboo Tube) and Noong hwagu (An Old Man Transforming into a Dog) within Sui-jeon. These narratives secured historical continuity through the Taoist lineage (domaek) documented in Cheonghak-jip, Haedong jeondorok, and Haedong ijeok. Heo Gyun's Jangsaeng-jeon and Namgung-seonsaeng-jeon serve as early examples of these legendary traditions being shaped into a novelistic grammar, characterized by an enumeration of extraordinary deeds and the narrative structure of buji sojong (an unknown end/disappearance).

Unlike folk legends that merely report miraculous events, Iin-oseol emphasizes the narrative significance of the protagonist's withdrawal from secular life to transcendental utopias, such as remote mountains or islands, thereby reflecting the conflict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A distinctive feature of Iin-oseol is that protagonists build their capabilities through spontaneous motivation or self-study rather than traditional master-disciple relationships, using dosul to relativize or subvert the authority of the established order.

This paper re-examines Choe Go-un jeon, Hong Gil-dong jeon, and Jeon U-chi jeon—previously classified as heroic novels—within the context of Iin-oseol.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 narrative structure encompassing abnormal birth, extraordinary deeds, and transcendental seclusion constitutes the core identity of Iin-oseol, thereby establishing its status as a distinct genre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prose.

Keywords: Iin(Extraordinary Person), Iin-oseol, Ilsa-oseol, Taoist Magic, Choe Goun jeon, Hong Gil-dong jeon, Jeon U-chi jeon

접수일자: 2026. 3. 31. 심사기간: 2026. 4. 1.~2026. 5. 10. 게재결정: 2026. 5. 10.
--

